

# 세시풍속을 통해 본 윤달의 의미

김 명 자\*

## 목 차

- I. 머리말 - 曆法과 윤달
- II. 윤달의 세시풍속과 특성
- III. 윤달의 성격과 의미
- IV. 세시풍속과 윤달의 관계
- V. 맺음말

## I. 머리말 - 曆法과 윤달

“1993년 癸酉年에는 음력 3월에 윤달이 들었다. 신문가십란에는 이와 관련된 기사가 실렸다. 음력 3월이면 양력 4월로 소위 혼례철이다. 그런데 3월에 윤달이 들어 사람들이 혼례를 꺼린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예식장 예약이 형편없을 정도로 줄어 올상이라는 내용이었다.”<sup>1)</sup>

오늘날 윤달에 대한 개념은 다소 혼재되어 있다. 그런 중에서도, 위의 내용처럼 과거에서부터 전해오는 윤달에 대한 인식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일상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역법인 太陽曆에서 윤달과, 종전에는 일상력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太陰曆에서 윤달의 개념은 다르다. 태양력에서 윤달은 4년마다 2월에 든다. 평소에는 2월이 28일로 고정되어 있으나 윤달이 든 해에는 이 달이 29일이 된다. 태음력에서 윤달은 일정하지가 않아 3년에 한 차례, 또는 5년에 두 차례로 그 주기가 조금씩 달라진다. 게다가 태양력에서처럼 일정한 달에 윤달이 들지 않는다. 음력에서는 그 때마다 윤달이 드는 달(月)이 달라지는데 태양력처럼 하루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달이 반복되어 1개월이 길어진다. 이 반복되는 달이 윤달이다. 漢字로는 閏月이라고 쓰지만 보통 윤달이라고 하며 윤달이 든 해를 閏年이라고 한다.

\* 안동대학교 교수

1) 김명자, 1994. 『되는 집안은 장맛도 달다-전통의 멋과 슬기-』 (서울: 열린문화) 272~273 참조

태양력은 曆日과 계절이 일치하므로 태양년이 지날 때마다 역일이 반복된다. 태양력에서는 달의 朔望을 고려하지 않는다. 한 달의 日數는 다소에 관계없이 오직 계절과 曆日이 1태양년을 주기로하여 반복되는 것이다. 1태양년은 365.242196일이므로 1년을 365일로 정한다면 0.242196일이 남아 이것이 쌓이면 계절과 맞지않아 4년에 한 번씩 2월에, 1일의 閏日을 돕으로써 역일을 계절에 맞추도록 했다.<sup>2)</sup>

12태음월로 만들어진 純太陰曆에서 1년의 길이는 1태양년의 길이보다 10.8751일이 짧으므로 계절과 매우 어긋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 10.8751이 3년간 쌓이면 윤달 1개를, 8태양년에는 윤달 3개를 태음력에 더해 주어야 계절과 맞는다. 만일에 태음력에 윤달을 두지 않는다면 33.6년 후에는 1년, 즉 12개월의 차가 난다. 이것은 33.6년에 12윤달을, 33.585년에 12.000개의 윤달을 더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순태음력에 간혹 윤달을 끼워 넣어서 맞추도록 힘쓰고 있다.

우리가 흔히 음력으로 일컫는 태음력은 원래 太陰太陽曆의 준말로써 이것에도 계절과 역일의 차가 약 30일이 생기게 되므로 계절을 알리기 위해 24氣를 써왔다. 24氣는 12개의 節氣와 12개의 中氣로 되어 있다. 윤달을 끼워넣는 위치는 음력의 曆月이 계절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역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을 때에는 그 위치가 구구하였다. 윤달의 위치는 第12월 다음에 두는 歲末閏, 第6월 다음에 두는 歲中閏, 고정되지 않는 不正閏 등의 세 경우가 있어서 고대의 각 민족이 각각 다른 방법을 취해왔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不正閏에 속하는 것인데 中氣가 들어있지 않은 달을 윤달로 하는 소위 無中置閏法을 채택하고 있다.<sup>3)</sup>

우리나라에서는 태양력을 사용하기 전까지 태음력인 時憲曆을 써왔다. 이는 조선조 효종 4년(1653년)에 채택되었는데 약 250년간 사용하다가 1895년(乙未年) 음력 9월9일, 官報에 詔勅을 실어 태양력을 쓸 것을 공포함으로써 1896년 1월1일(태양력. 음력으로는 11월17일)부터 태양력을 쓰게 되었다. 시헌력의 계산방법은 서양식이기도하지만 어디까지나 太陰太陽曆이며 그 역법에서는 1태양년을 365.2422일 또는 365.2423일, 1태음월을 29.53059일로 두었다.<sup>4)</sup>

太陰太陽曆에서 윤달은 3년에 한 번, 5년에 두 번이 든다. 구체적으로는 19년 7윤법, 즉 19태양년을 주기로 같은 달에 윤달이 반복되는 것이다. 실제로 1914년 윤5월에 출생한 사람은 1933년·1952년·1971년·1990년·2009년·2028년의 각 윤5월에 자기 생일이 한 번씩 돌아온다. 모두 19년 간격이다. 이 사람이 음력을 고수한다고 하면 100세 장수를 해도 자기 생일은 네 번에 불과하다.<sup>5)</sup> 결코 일상적인 일은 아니다.

일년은 12개월이 정상이지만 음력으로 윤달이 드는 해에는 1개월이 더 있어 13개월이 일

2) 이은성, 1985. 『曆法の 原理分析』 (서울: 정음사) 158.

3) 이에 대해서는 이은성, 『앞 책』 (주 2) 160-163 참조.

4) 자세한 내용은 이은성, 『앞 책』 (주 2) 340-344 참조.

5) 이은성, 『앞 책』 (주 2) 176.

년이 된다. 평상시와는 다른 월력이 생겨나 이 달에 대한 인식도 평시와는 다르다. 평소 꺼리는 일을 이 달에는 마음놓고 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윤달이 든 해에 장승제를 지내기도 한다. 이와같이 윤달에 행해지는 관행을 윤달의 세시풍속 또는 세시의례라고 한다.

음력 정월부터 신달까지 거행되는 주기전승의례인 세시풍속은 1년을 주기로 해마다 같은 시기에 행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1년 주기가 아니더라도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반복될 경우 세시풍속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세시풍속을 季節祭라 하고 특히 정월의 세시는 新年祭라고 한다. 윤달은 月曆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년 12개월에서는 벗어난다 하더라도 결국 1년이라는 단위 속에 포함되므로 윤달의 주기성은 세시풍속을 개념화하는 범주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윤달에 행해지는 儀禮的인 관행도 세시풍속에 포함된다. 이밖에 격년마다 행해지는 장승제라든가 3년마다, 혹은 5년마다 행해지는 별신제도 같은 범주에서 논의될 수 있다. 물론 주기성을 지닌다하여 모두 세시풍속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생일이나 제사·혼례와 같은 一生儀禮는 제외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혼례를 개인 차원이 아닌, ‘공동의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이 세시풍속의 범주에서 논의한다. 먼저 윤달의 세시풍속과 그 특성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평상의 12개월과는 다른 윤달의 성격과 의미를 파악해 본다. 끝으로 세시풍속과 윤달의 관계에 대해 간략하게 피력한다. 이 글에서 세시는 세시풍속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임을 밝혀둔다.

## II. 윤달의 세시풍속과 특성

### 1. 죽음과 관련된 歲時

『東國歲時記』에는 ‘윤달에는 혼례하기에 좋고 壽衣를 만드는데 좋다. 모든 일을 꺼리지 않는다. 廣州 奉恩寺<sup>6)</sup>에는 윤달이 되면 서울 장안의 여인들이 다투어 와서 불공을 드리며 돈을 탐 위에 놓는다. 그리하여 그 윤달이 다 가도록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극락세계로 간다고하여 사방의 노파들이 분주히 달려와 다투어 모인다. 서울과 외지의 여러 절에서도 대개 이런 풍속이 있다<sup>7)</sup>고 기록되어 있다.

제주도에서는 윤달에 호상옷(저승옷, 壽衣)을 만들거나 佛堂에 드나드는 불신자의 경우 生前豫修齋를 올리기도 한다. 생전예수제란 부처님께 올리는 齋의 하나로서 이는 살아 생전에 저지른 죄를 해탈해 주십사고 하는 한편, 죽은 다음에는 극락세계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의미에서 행하는 불공이다. 보통 죽은 후에 베풀게 되는 불공을, 여유있는 사람들은 죽기 전 미리 스스로가 올린다. 그리고 윤달에 죽은 사람의 제사는 원달(元月)과 윤달,

6)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동 修道山에 있는 절

7) 洪錫謨, 『東國歲時記』 閏月 條

두 차례에 걸쳐 지낸다.<sup>8)</sup>

윤달에는 호상옷을 만들되, 그 만드는 과정에서 뒷바느질(박음질이라고도 함)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의 매듭을 짓지 않는다. 호상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뒷바느질을 하게 되면 자손이 번성은커녕 줄어들게 됨을 면치 못하며 실을 매듭지으면 자손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윤달에는 밤나무로 祭床을 만들면 자손들이 밤알처럼 아무지게 번성한다는 관념이 있어 사람들은 윤달에 밤나무 제상을 만드는 풍속이 있다.<sup>9)</sup>

이밖에도 閏六月에 수의를 지어두면 오래 산다는 옛말이 있다. 생전에 미리 수의를 짓는 것은 죽음을 삶의 끝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보는 긍정적인 來世觀 때문이기도 하다. 수의를 짓는 데는 금기가 있다. 실을 바느질 도중 잇거나 그 끝은 움매지 않는 데 이는 죽은 사람이 저승길을 가다가 길이 막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의는 버들고리에 넣어 방안에 있는 선반에 얹어 보관하였다가 일년에 한 두 번씩 바람을 쏘인다. 尙南에서는 수의를 먼 곳으로 갈 때 입는 옷이라 하여 ‘머능옷’이라 불렀으며 죽을 때 입는 옷이라하여 ‘죽음매옷’이라고도 한다. 이곳에서는 수의를 지을 때 반드시 마당이나 마루에서 짓는다. 그러나 수의를 미리 장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喪을 당하면 할 수 없이 방 안에서 짓는다. 수의는 일반적으로 매듭을 짓지 않고 다 꿰맨 다음 실을 길게 늘어뜨려 두는 것이 평상복을 지을 때와 크게 다른 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실이 來世와 現世를 이어준다는 俗信에서 비롯한다. 그밖에 수의를 지을 때에는 동정을 아예 달지 않거나 종이심을 빼고 단다. 지방에 따라서는 수의를 미리 준비할 때와 喪을 당한 후의 바느질 법이 다르다. 忠南 公州의 어느 집안에서는 수의를 미리 장만할 경우 평상복과 같은 방향으로 바느질하고, 마무리할 때에도 울매듭을 지었지만 상을 당한 후에는 아버지 것은 ‘용갱기치기’라고 하여 꺾지 않고 그냥 휘감쳤고 어머니의 것은 한 번 꺾어서 흠질을 했다고 한다.<sup>10)</sup>

慶北 安東지역에서도 노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윤달에 수의를 지어 놓는다. 수의를 ‘머능’<sup>11)</sup>이라고도 하며 이는 명주나 삼베로 짓는다. 예전에 잘사는 집안에서는 여자들의 수의에 원삼 족두리까지 다 지었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머능의 종류도 유행인냥, 원삼 족두리는 짓지 않고 두루마기와 치마·저고리를 짓고 이불과 요를 명주와 삼베로 짓는다. 남자들의 수의는 도포·속적삼을 삼베로 짓고 저고리는 명주나 삼베로 짓는다. 수의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짓기도 한다. 윤달이나 또는 노인의 생일달에 짓는데 노인이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짓지 않는다. 예전에는 수의 뿐 아니라 널(관)도 미리 짜서 까맣게 옷칠을 하는 등 모든 준비를 해두었다.<sup>12)</sup> 옷을 짓지는 않으나 옷감만 준비해두는 경우도 있다. 수의를 가족이나 입을 당

8) 秦聖麒, 1977(3판). 『南國의 民俗-濟州島 歲時風俗-』 (서울: 敎學社) 397~398.

9)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편, 1982. 『韓國民俗大觀 4-歲時風俗·傳承놀이편-』 281.

10) 趙孝順, 1988. 『韓國服飾風俗史研究』 (서울: 一志社) 313~314.

11) 먼곳에 가서 입는다는 뜻, 곧 ‘먼 옷’을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2) 金明子, 1988. 『松川洞의 家神信仰과 歲時風俗』 『安東文化』 (安東: 안동대 부설 안동문화연구소) 9,

사자가 직접 짓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 짓는 사람을 불러 부탁한다. 특히 사망 후에 짓는 수의는 매듭을 맺지 않으나 노인 생전시에 짓는 수의는 보통옷과 마찬가지로 매듭을 지어놓는다. 수의를 미리 지으면 그 속에 담배·소독약 등을 넣고 다락에 매달아둔다. 벌레라도 들거나 상하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풍을 한다.<sup>13)</sup>

全北 鎭安지역에서도 집안에 노인이 있으면 윤달에 그 분들이 돌아가실 때에 입을 옷을 만들고 또 널을 짜서 널 속에 수의를 넣어두기도 하며, 미리 준비해 놓은 집에서는 윤달이 오면 꺼내어 손본 후 다시 들여놓는다. 鎭安·長水·茂朱 등지에서는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다하여 緇禮를 하거나 묘를 수리한다. 高敞에서는 여자와 아이들이 성돌이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극락세계에 간다고 한다.<sup>14)</sup>

이처럼 죽음과 같은 凶事에 관련된 일도 윤달에는 꺼리지 않고 행한다. 城돌기는 죽음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지만 윤달의 城돌기는 좋은 來世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죽음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 2. 가옥과 관련된 歲時

윤달에는 부정이나 액이 없다고 믿어 혼례·집수리·이사·先墓단장·호상옷 만들기 등 평소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집안의 일들을 마음놓고 할 수 있다.

예전에는 변소를 고친다던가 그밖에 집수리를 함부로 하지 않았으며 장독도 함부로 옮기지 않았다. 특히 음력 6월은 ‘씩은 달’이라 하여 ‘얕은 방식도 옮기지 않는다’는 말이 있으며 매사에 조심을 했다. 서울 松波지역의 한 제보자는 지난 1960년 전후, 음력 6월에 변소를 옮긴 후 큰 禍를 당할뻔한 적이 있었다. 변소를 고치고 이틀이 지났는데 발일<sup>15)</sup>을 마치고 돌아와보니 네 살된 셋째 아이(아들)가 죽 늘어져 인사불성이었다. 부인이 안고 병원에 가려하는데 제보자가 보니 병원에 갈 병이 아니었다. 집안에 탈이 난 것이 분명했다. 마을의 有識한 노인에게 보이니 역시 제보자의 생각과 같았다. 고추씨·미나리씨를 뒷간에 띄우고 임금 王字를 거꾸로 써붙이며 眞言을 했다. 만신(무당)집에 찾아가니 툽으로 써는 소리, 못질하는 소리가 난다며 무엇을 했는가고 물었다. 집에서 무언가 썰고 고쳤다는 점괘가 나왔다. 만신집에서 致誠을 드리니 아이는 대번에 뛰며 놀았다.<sup>16)</sup>

음력 6월에는 이사를 하지 않는다. ‘얕은 방식도 옮기지 않는다’는 달’이니 이사는커녕 집

92.

13) 제보자 權락순(여, 48세. 慶北 安東郡 豐山邑 安郊1洞 93). 1983년 4월1일-3일 조사

14)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편, 1977.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全北 篇』(대구:螢雪出版社), 494.

15) 이 지역은 원래 京畿道 廣州郡 中堡面이었으나 1963년 1월1일 서울로 편입되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農事를 주 생업으로 하던 곳이다. 송파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金明子, 1982. 「松波의 歲時風俗」, 『韓國民俗學』(서울:民俗學會) 4~9.

16) 金明子, 1982. 「앞 글」(주 15) 28.

안 물건도 함부로 옮기지 못한다. 흔히 봄과 가을에 이사를 많이 하지만 요즘은 이사철이 달리없이 사 계절 내내 이사짐이 오간다. 그러나 요즘도 음력 6월에는 이사를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다. 썩은 달이라는 인식이 전승되기 때문이다. 반면 윤달에는 日辰 같은 것은 보지 않고 아무 때나 마음대로 이사를 하고 집도 수리한다. 말하자면 부정이나 액을 타는 일은 이 달을 이용하여 행하는 것이다.

### 3. 除厄超福 및 慶事와 관련된 歲時

윤달에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위해 마을제사인 장승제를 지내기도 한다. 忠北 中原郡 文義面 文德里 앞실마을에는 塔神과 장승이 있는데 답에는 해마다 정월 열나흘날 밤에 제를 올리지만 장승제는 윤달이 드는 해에만 정월 열나흘날 밤에 지낸다. 塔神에 대한 제와 장승제를 모두 지내는 해에는 먼저 답신에게 제를 지낸 후 이 제물을 장승 앞에 그대로 올리고 장승제를 지낸다. 이 마을의 장승은 나무장승이어서 소나무를 베어 마을 사람들이 직접 깎는다. 낮에 장승과 솟대를 세운 후에는 풍물을 치며 한바탕 놀고 마을 곳곳을 요란하게 소란을 떨며 밟아준다. 동민들은 마을을 해치는 雜鬼·雜神·厄 등이 쫓소리를 들으면 달아난다고 믿는다.<sup>17)</sup> 정월 대보름 자정을 전후하여 장승제를 지내기 시작하여 새벽 1시 무렵에 마친다.

忠南 瑞山郡 浮石面 倉里에서는 윤달이 드는 해 정월 초나흘에 장승제를 지낸다. 이 마을에는 국수당과 靈神堂이 있어 초이튿날 자정 무렵 국수당에서 祭를 지내고 초사흘날에는 영신당에서 제를 지낸다. 장승제는 윤달이 드는 해 정월 초나흘날 지낸다. 정월 초사흘 낮에 동민들이 소나무를 베어다 장승을 만든다. 장승이 완성되면 도가에 하룻밤을 재운 뒤 이튿날인 초나흘날에 아침밥을 먹은 후 동민들이 도가로 모여 장승 둘을 앞세우고 장승재로 향한다. 이들 뒤로 팽과리·징·장구·북 등의 풍물패가 따르며 풍물을 올린다. 장승재로 가서 새 장승을 구장승 옆에 세운 뒤 제를 지낸다.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윤달이 드는 해는 질병이 떠돌고 재앙이 심하여 그 예방으로 장승을 세우는데,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관습이어서 그대로 하고 있다고 한다.<sup>18)</sup>

忠南 瑞山郡 音岩면 遊溪里에서는 정월이나 2월에 윤달이 들면 장을 담근다.<sup>19)</sup> 서산군 地谷面 中旺里에서는 팔죽을 쑤어 먹는다. 팔죽을 쑤면 먼저 성주·조왕·지신 등 家神의 자리에 떠놓고 대문에 팔죽을 뿌린 뒤에 식구들이 나누어 먹으며 이웃에 나누어 주기도 한다.<sup>20)</sup>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달이 없는 달, 재액이 없는 달, 무슨 일을 하더라도

17) 앞실마을의 장승제에 대해서는 金泰坤, 1983. 『韓國民間信仰研究』(서울:集文堂) 188-193 참조.

18) 倉里의 장승제에 대해서는 金泰坤, 1983. 『앞 책』(주 17) 196~199.

19) 慶熙大 民俗學研究所 編, 1987. 『瑞山民俗誌(上)』(서산: 瑞山文化院) 448.

20) 『앞 책』(주 19) 495.

거리낌이 없는 달이기 때문에 수의를 짓고, 집수리·이사 등은 물론 혼례와 같은 경사스러운 일을 행한다. 또한 節日처럼 팔죽을 쑤어 먹으며 각별하게 보내기도 하고 장을 담그는 일과 같은 살림준비도 마음껏 한다.

#### 4. 윤달 세시의 특성

윤달의 세시풍속은 다양하지도 않고 지역적인 특성 역시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공달인 윤달에는 정상의 달인 평소에 꺼리거나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壽衣 만들기·墓移葬·집수리·변소 고치기, 그리고 移徙 등을 거리낌없이 할 수 있는데 이는 윤달이면 전국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윤달의 세시는 단편적이며 지역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 속에는 衣食住가 두루 포함되어 있다. 이승에서 살다가 저승으로 갈 때 입는 수의를 만드는 일, 묘이장, 死後 극락세계로 가기 위한 불공과 城돌기에서부터 새로운 삶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혼례, 그리고 移徙, 마을의 평안을 위한 장승제, 집안의 흥망을 대변해준다는 醬<sup>21)</sup>을 담그는 일, 명절과 같은 각별한 시기로 생각하여 팔죽을 쑤어먹는 일에 이르기까지 삶과 죽음의 문제가 모두 포괄되는 것이다. 평소 꺼리는 일 뿐 아니라 경사스러운 일도 이 달에 마음놓고 한다. 또 除厄과 관련된 세시도 있다.

평소 어렵게 생각하는 일들을 거리낌없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달은 다른 달과 변별성을 지닌다.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나지 않는다’는 속담은 바로 윤달이 거리낌없는 달임을 반영한다. 그런가 하면 윤달은 질병과 재앙이 있는 곳은 달이라는, 전혀 상반된 인식도 있어 조심을 해야 한다.

평소에는 탈이 날 것이 두려워 금기하던 일을 윤달에는 꺼리지 않는다. 말하자면 금기에서 해방되는 시기가 윤달인 것이다. 혼례는 경사로운 일에 해당되지만 택일하는데 까다롭다. 택일 자체는 금기가 아니지만 택일할 때에는 금기가 많이 따른다. 그만큼 까다롭게 日辰을 보아 吉日을 잡는 것이다. 그러나 윤달에는 마음놓고 할 수 있다는 것도 넓게 보면 금기가 해제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윤달 중에도 좋은 날로 택일을 해야겠지만, 이 달 자체를 吉月로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장을 담그고 팔죽을 쑤어먹으며 節日처럼 각별한 때로 보낸다. 불공과 城돌기는 死後 극락세계로 가기 위한 것으로 죽음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지만 좋은 내세에 대한 보장이란 점에서 죽음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

21) ‘흥하는 집안의 장맛은 달고 망해가는 집안의 장맛은 구린 냄새가 난다’는 속담도 있듯이 장맛은 곧 그 집안의 흥망을 대변해준다고도 한다. 이와같은 속담의 實例로 보여주는 내용이 『三國史記』 권4 열전 제1 金庾信 條에 수록되어 있다.

윤달이 吉月이어서 그 때의 불공과 城돌기는 한층 의미가 있다. 반면 윤달에는 질병과 잡귀가 성해 장승제를 지낸다 고 했다. 그렇다면 윤달은 꺼리는 게 없는 吉月이면서, 왜 한편으로는 질병과 잡귀가 盛한 달로 인식할까. 윤달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 Ⅲ. 윤달의 성격과 의미

#### 1. 윤달의 兩面性

세시풍속을 통해 본 윤달은 금기가 해제되는 달인 반면 질병과 재앙이 있는 별난 달이다. 中國 歲時記의 古典이자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荊楚歲時記』에 따르면 윤달에는 不舉百事, 곧 백사를 거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달에 왕은 正殿에서 나와 寢門에 居한다. 그러므로 閨자는 門 가운데 王자가 있는 것이다. 이 달에 백사를 제쳐(또는 거행하지 않음) 氣에 맞지 않게 한다. 윤달의 별칭으로 閨자를 풀어 王門이라고 하며 양기가 남아돈다하여 餘陽, 나머지 달이라하여 餘月이라 하는데 정상적인 달이 아니라고하여 非常月이라고도 한다. 고대 周나라 임금의 매달 초하루, 조상을 모신 宗묘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윤달의 초하루만은 宗묘에 가지 않고 침전 문 안에 있다하여 門 속에 王자를 넣어 閨자를 만든 것이라 한다. 문은 路寢의 문이다. 노침은 임금이나 제후가 정사를 보던 正殿으로 大寢·정침이라고도 한다. 정상적이 아닌 기운 속에서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고에서 백사를 기피하고 근신하는 풍조가 고대부터 있었다.”<sup>22)</sup>

『荊楚歲時記』의 기록은, 윤달에 오히려 일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윤달은 非常月이기 때문에 왕은 평소와 달리, 寢門에 居하며 윤달 초하루에는 宗묘도 가지 않는다. 정상적인 아닌 달이어서 매사에 금기하고 조심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윤달에 평소 꺼리는 일을 마음놓고 한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陽氣가 남아돈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할까. 윤달에 대한 우리의 해석도 똑같은 것만은 아니다.

“윤달은 공달·빈달로서 정상적인 달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신들의 月中行事에 따른 일정표에서 제외된 텅빈 달이라는 관념에서 평상시 신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하고 꺼려하던 일들을 손본다 해도 靨은 것으로 俗信되기도 한다. 말하자면 귀신의 세계에서도 마치 우리 인간생활의 국가적 행정체계처럼 그 귀신의 직위나 관장하는 영역이 한결같지 않으며 제각기 그 신들의 직분에 따라 인간생활을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다.”<sup>23)</sup>

22) 종름 원저, 1996. 상기숙, 『荊楚歲時記』 (서울: 집문당) 157~158.

2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1982. 『韓國民俗大觀 4-歲時風俗·傳承놀이 편』 280~281.



윤달이 정상적인 달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점은 중국과 같으나 꺼리지 않는 달이라는 인식은 대조적이다. 뒤에서 다시 논의되겠지만 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윤달을 매사에 조심해야 하는 달, 말하자면 꺼리는 달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제주도에는 윤달과 흡사한 新舊間이라는 것이 있다. 민간에서는 이사나 집수리 따위를 비롯하여 집안 손질은 언제나 이 신구간이라는 기간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관념되고 있다. 신구간은 大寒 후 5일에서 입춘 전 3일간으로 기간은 보통 일주일이다. 그래서 이 신구간은 보통 新舊歲官이 交承하는 과도기간을 뜻하고 이 기간에는 대체로 제반 神格이 天上으로 올라가서 地上에는 신령이 없는 것으로 관념한다. 그러기에 이 기간에는 이사나 집수리를 비롯한 평소 꺼려했던 일들을 손보아도 아무 탈이 없어 무난하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평상시에 그런 일을 하면 동티가 나서 그 집에는 큰 家患이 닥치고 액운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한다.<sup>24)</sup>

제주도의 신구간은 거리낌없는 기간이다. 神이 존재하는 평소에는 집수리와 같은 각별한 일을 꺼리고 그런 일을 하면 자칫 동티가 나지만 신구간에는 신이 없어 무슨 일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달은 손이 없는 달이라고도 한다.<sup>25)</sup> 손은 날을 따라 인간생활에 해를 끼친다는 귀신의 일종이다. 손이 없다는 것은 윤달에 神이 없다는 말과도 통하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귀신인 ‘손’은 없지만 그밖의 귀신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만일 神이 없어서 꺼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은 인간에게 해만 끼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神觀念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여기서 鬼와 神을 구분하여 귀는 惡鬼로 신은 善神으로 구분한다면, 그러한 해석도 가능하지만 선행논고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통념대로 귀신과 신을 혼재해서 사용했다.<sup>26)</sup> 혹 善神과 惡鬼를 구별했을 경우, 윤달에는 악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결국 선신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윤달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 꺼리는 일을 마음놓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된 논리다. 아니면 비록 善神일지라도 잘못 모시면 벌을 주니까, 우리의 신은 모두 인간에게 해를 입힌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래서 귀신이 없는 것이 편하고 귀신이 있으면 일단 어려워진다고 생각해서일까. 이런 저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윤달에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지역에 따라서는 윤달에 질병과 재앙이 있다고 믿기도 한다. 인간을 돌보아주는 신이 없어서 질병과 재앙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이 많기 때문인지 그 기간에는 온갖 잡귀까지 있어서

24) 秦聖麒, 1977. 『앞 책』 (주 8) 383~384.

25) 張籌根, 1984. 『韓國의 歲時風俗』 (대구: 螢雪出版社) 315.

26) 원래 鬼는 악귀 계통, 神은 조상신과 같은 善神을 일컫는다고 하는데 굳이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통틀어 귀신이라고도 하고 그냥 신이라고도 한다. 인간에게 해를 준다는 귀신을 객귀·잡귀라 하여 구별하기도 한다. 우리 귀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 논문 III-2에서 논의된다.

그런지 생각해 볼 일이다.

중국에서는 윤달이 정상적인 기운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고에서 백사를 기피하고 근신하는 풍조가 고대부터 있었다는데 이렇게 정상적이 아닌 달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윤달을 다소 부정적인 시각에서 논의한 경우를 보자.

“윤달은 정통의 달이 되지 못하고 두 개의 정통의 달 사이를 메꾸주는 달이라하여 서자처럼 푸대접당하는 달인듯하다. 실제로 군달 또는 여분의 달이라 하여 윤달에는 月建도 月白도 배당되지 않는다. 윤달에는 사물의 길흉을 지적할만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는듯하다. 옛적에는 왕이 평소 조정에서 거처하지만 윤달에는 문간에서 거처하였다하여 閏자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즉 윤달은 왕위까지 위축시키는 달이었던 모양이다. 옛날에는 윤달이 든 해에 국고금이 딸려서 강제노동처럼 국가에 부역을 나간 일이 있었다. 이것이 閏月役이다. 또 이런 해에 세금을 더 바치기도 했다. 이것을 閏耗銀이라고 한다. 국가에서는 평년에는 12달의 예산편성을 하였지만 윤달이 든 해에는 13달의 지출예산을 짜야 한다. 윤달 때문에 13개월의 월급을 주기도 어려운 일이고 더구나 월급을 깎아 내려서 주기도 어려운 일이다.”<sup>27)</sup>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윤달의 성격에 대한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윤달은 귀신이 없으니 탈이 없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달이다.

둘째 윤달은 손이 없는 달이어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달이다.

셋째 윤달은 질병이 떠돌고 재앙이 심한 달이다.

넷째 윤달은 정상의 달이 아니다. 그래서 평시에 하는 것처럼 하면 안되는 달이다.

다섯째 윤달은 양기가 남아도는 달이다.

첫째에 따르면 평소에는 귀신이 존재하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윤달에는 귀신이 없어서 꺼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손’은 인간에게 해를 주는 귀신이라고 한다면 그밖의 귀신은 존재한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야 어쨌든 꺼리지 않는 달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귀신이 없어서 질병과 재앙이 심한 건지 아니면 귀신이 들끓어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질병·재앙은 막아야하니 꺼리는 달이라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첫째·둘째와는 상반된다. 넷째의 경우는 윤달이 정상의 달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니 오히려 꺼리는 달이다. 역시 첫째·둘째와는 상반된다. 다섯째 양기가 남아도는 달이란 우리 식으로 소박하게 해석하면 吉月이라고 할 수도 있다. 가령 음력 5월 초닷새 端午날은 陽氣가 센 날, 또 陽數인 홀수가 겹쳐 吉日이라고 생각한다. 중용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넘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陰陽은 각각 홀로 독립되어 있을 수는 없고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陽은 홀로 설 수 없고 반드시 陰을 얻은 후에 설 수 있는 고로 양은 음을 基로 삼고, 음은 스스로 나타날 수 없어 반드시 양을 얻은 후에 나타나는 고로 음은 양으로 唱을 삼는다.’<sup>28)</sup>는 논리를 따른다면 陽氣만이 넘치는

27) 이운성, 1985. 『알 책』 (주 2) 175~176.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꺼리는 달에 가깝다.

지금까지 논의한 다섯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다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윤달에는 귀신이 없어 꺼리지 않고 일한다.

둘째 손이 없어 역시 꺼리는 일이 없다.

셋째 질병과 재앙이 있으니 액막이를 해야한다. 그러니 꺼리는 달이다.

네째 정상의 달이 아니어서 꺼린다.

다섯째 양기가 넘쳐 좋지 않으니 꺼리는 쪽에 가깝다.

결국 첫째와 둘째를 제외하고는 세 요소가 모두 꺼리는 쪽에 해당된다. 이를 보면 흔히 윤달에는 평소 꺼리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 거리낌없는 달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한 편으로는 윤달이 금기하고 조심해야하는 달, 곧 꺼리는 달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윤달이 이렇게 양면성을 지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 2. 윤달의 神聖的 意味

윤달은 꺼리지 않는 달인 반면 꺼리는 달이라는 양면성을 지닌 달이다. 윤달에는 무슨 일이든지 마음놓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정상의 달이 아니어서 백사를 거행하지 않는다고도 한다. 평시에는 귀신이 있으나 윤달에는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없이 할 수 있다거나 그 逆으로 평시에는 귀신이 없으나 윤달에는 귀신이 들끓어서 백사를 거행하지 않는다고도 한다, 또는 질병과 재앙이 있다든가, 그 해석은 여하간 윤달은 일상의 달에서 벗어난 달로, 日常月이 아니라 非常月이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다.

日常月에서 벗어난, 그래서 이것과 대칭을 이루는 것은 非常月이다. 일상과 대칭을 이루는 것은 비밀상이 된다. 종교학에서 聖俗의 개념은 일상과 비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일상적인 것이 現實이라 할 때 비밀상적인 것은 非現實, 그리고 현실을 흔히 世俗이라 하며 비현실은 세속과 상대적 관계에 있는 神聖이라 한다. 宗敎學이나 神話學에서 世俗은 코스모스(cosmos), 神聖은 카오스(chaos)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윤달은 일상의 12개월에서 벗어난 여별달, 곧 비밀상적인 달로서 神聖한 달, 카오스의 달이다. 카오스는 萬物의 無限 根源<sup>28)</sup>으로서 신성한 달에는 신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으며<sup>30)</sup> 아울러 神力의 도움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 신과 자유롭게 접할 수 있어 신의 힘을 입어 평소 꺼리던 일도 마음놓고 할 수 있다. 제의를 할 때 인위적으로 신성한 시간과 공간을 설정하는데 윤달은 그 자체가 바로 신성시간이며 신성공간이어서 거리낌없이 할 수 있는 것

28) 李恩奉, 1992(2쇄). 『음양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7, 479~480.

29) 이에 대해서는 金泰坤, 1981. 『韓國巫俗研究』 (서울:集文堂) 150~193 참조.

30) 金泰坤, 1981. 『알 책』 (주 29) 468.

이다. 이렇게 신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으므로 평소 꺼리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神力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윤달이다.

그렇다면, 윤달은 신성한 달이어서 무슨 일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그 반대로 질병과 재난이 많은 달이라는 양면성을 지니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 民俗信仰의 神觀은 多神觀이다. 무수한 神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양한 神들 가운데에는 善神과 惡鬼 모두 있다. 물론 이들 중에는 모호한 성격을 지닌 것도 있으며 善神일지라도 사람이 잘못 모시면 병이나 고통을 주면서 벌을 내리기도 한다.

巫神은 인간에게 어떤 理性的인 啓示를 통하여 그 능력을 引導·行使한다기보다는 무서운 고통을 주는 罰로서 신의 意思를 전달시키기 때문에 비록 인간을 수호해주는 善神일지라도 늘 공포의 대상이 된다. 이런 관계로, 신앙하는 신을 숭배하여 따른다는 거룩한 마음보다는 신의 의사에 어긋나면 무서운 벌을 받는다는 공포감이 언제나 先行한다. 굿을 하는 집의 주인이 정성이 부족해서 禍를 입었다든가, 不淨한 몸으로 聖域에 들어가서 急死했다든가 祭를 잘못지내서 ‘산이 덧났다’든가 하는 말은 바로 신의 벌을 가르키는 것이다.<sup>31)</sup> 이러한 속성은 巫神 뿐 아니라 民俗信仰의 神 전반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다. 마을의 甍안을 위해 洞祭를 지내고 난 후 마을에 좋지않은 일이 생길 때 마을 사람들은 동제를 잘못 지냈기 때문이라고 인식한다. 守護神으로 위하는 堂나무를 함부로 건드려 동티가 났다는 사례도 곧잘 나타난다. 평소에는 마을을 잘 보살펴준다는 洞神인 堂나무일지라도 잘못 건드리면 무서운 벌을 내리는 것이다.

우리 민속신앙에서 신의 종류는 다양하며 저마다 그 직능이 있어 그야말로 인간사회의 모습과도 흡사하다. 그 직능이 다양하여 무당이 굿을 할 때에는 각 굿거리에 따라 적절한 신을 부른다. 이를 請神이라고 한다. 굿터는 神聖狀況이 된다. 신성상황이란 바꾸어 말하면 온갖 神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굿판에는 필요해서 부른 神만 오는 것이 아니라 雜鬼類까지 몰려든다. 그래서 굿이 끝나는 뒤풀이에서는 굿터에 몰려든 雜鬼·雜神들을 위해 음식을 내놓는다. 이를 보통 ‘풀어 먹인다’고 한다.

鬼神은 늘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평소에는 불러야 온다. 굿을 할 때 신을 부르고 洞祭를 지내기 위해서도 請神을 한다. 윤달은 신성한 달이므로 神과 쉽게 접할 수 있다. 물론 윤달에도 굿을 하려면 請神과정을 거치겠으나 윤달 자체가 신성한 달이므로 이 때에는 신성의 극치를 이룬다.

윤달이 신성하고 그래서 무수한 신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고 했거니와 이 때에는 善神 뿐 아니라 온갖 雜鬼도 들끓는다. 그러다 보니 인간을 해치고 질병을 주는 잡귀류까지 행세한다. 윤달은 神聖해서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질병과 재앙이라는 禍를 당할 수 있는 달이다. 그래서 윤달은 꺼리지 않는 달이자 꺼리는 달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31) 金泰坤, 1981. 『앞 책』 (주 29) 286.

장승제를 윤달이 드는 해에 올리는 까닭은 윤달의 神聖의 性格에 基因한다. 윤달은 현실의 일상적인 12개월 밖에 있는 또 하나의 달(현실 밖에 있는 달)로서 이와같은 윤달이 현실 밖의 神聖쪽과 연결되어 현실 안의 13개월로 연장되어 들어온다. 그래서 비현실쪽에 있어야 할 神聖存在인 장승이, 現實空間 안의 有形的 공간존재인 장승으로 나타나기가 수월하다. 또 이와같은 이유 때문에 윤달이 드는 해에는 잡귀가 현실 공간 안에 많이 침범한다고 믿어 그 방어책으로 장승을 세우는 양면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윤달이 드는 해는 怪疾이 나돌고 물귀신이 많아 미역감다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많아진단다가, 무덤의 흙을 다루어야 하는 莎草는 윤달이 드는 해 한식 때에만 할 수 있다든지, 屍身에 입힐 수의는 윤달이 드는 해에 만드는 것이 좋다는 것 등은 현실과 구별되어야 하는 죽음이나 神聖에 관련된 것들은 일상적인 현실의 달이 아닌 그밖의 軍달로 덤이 되는 윤달에 해야만 달이 없다는 의미다. 그래서 죽음이나 신성이 일상적인 것과 선별된다. 윤달이 드는 해와 관계없이 3년마다 장승을 새로 깎아 세우고 장승제를 지내거나 洞神祭를 매년 지내되 3년마다 한번씩 무당을 불러 크게 당굿을 하는 그 3년이란 週期性이 앞서 말한 윤년의 週期와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sup>32)</sup>

윤달에는 ‘귀신이 없어서 평소 꺼리는 일을 한다’는 해석은 제주도의 新舊間에 대한 해석과 동일하다. 제주도의 新舊間은 新舊歲官이 交承하는 과도기간을 뜻하며 이 기간에는 대체로 제반 神格이 천상으로 올라가서 지상에는 신령이 없는 것으로 관념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新舊間은 新舊歲官이 교승하는 과도기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과도기간은 그 시기상 대체로 음력 선달 그믐무렵에서 정초 전후다. 이 시기는 묵은 해에서 새해로 넘어오는 시기로서, 끝나면서 확실한 시작 이전의 사이에 있는 空白期로 새 질서 이전의 혼돈기, 곧 카오스라는 신성기간이다. 신이 없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神聖期間이어서 평소 꺼리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윤달에 손이 없다는 것은 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손’ 이외에 다른 귀신은 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중국에서 非常月이라 한 것도 日常月과 구별하기 때문이다.

윤달은 양면성을 지니지만 궁극적으로는 神聖的인 意味로 집약된다. 음력 6월은 썩은 달이어서 ‘앉은 방석도 옮기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깔고 앉아있는 방석조차 마음대로 옮길 수 없는 달이니 얼마나 조심스러운 달인가. 그럼에도 閏六月에는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없이 할 수 있다. 이는 윤달이 신성한 달, 곧 神聖狀況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성상황, 즉 카오스상황에서는 하고자 하는 일, 소망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原本思考(Arche-Pattern)<sup>33)</sup>에 基因한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카오스는 만물의 무한 근원으로서 여기서는 인간이 소망하는 것

32) 金泰坤, 1983. 『韓國民間信仰研究』(서울:집문당) 209~210.

33) 原本思考에 대해서는 金泰坤, 1981. 『앞 책』 154~193·336~340·479~515 참조.

을 모두 획득할 수 있다. 原本 또는 原本思考는 存在根源에 대한 原質思考로서 이에 따르면 만물의 근원지인 카오스와, 세속인 코스모스는 완전히 分化된 것이 아니라 未分된 것이어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따라서 완전한 것이 없고 늘 결핍되어 있으며 모든 것이 有限한 현실, 코스모스에서 결핍된 것을 카오스에서 획득하고자 한다. 평소 꺼리던 일을 윤달에 마음 놓고 하는 것은 윤달이 카오스 상황으로서, 현실인 코스모스에서는 불가능한 일도 萬物存在의 無限根源인 카오스에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원본 사고의 표출이다.

#### IV. 세시풍속과 윤달의 관계

우리가 흔히 음력으로 일컫는 태음태양력에서 윤달은 12개월에서 벗어난 달이라하여 군달·공달(空月)·덤달·여별달 등이라 하고 윤달이 든 해를 閏年이라고 한다.

윤달에 행해지는 풍속 가운데서 몇몇은 엄밀히 따지면 세시로 논의될 수 없는 것들이다. 壽衣짓기·이사·집수리를 비롯하여 婚禮와 같은 개인의 慣行은 사실상 歲時에서는 벗어난다. 만약 이러한 행사들이 윤달이 아닌 다른 달에 행해진다면 세시풍속의 범주에서 논의될 수 없다. 장승제라든가 城돌기 정도가 무리없이 세시에서 논의될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그밖의 것은 개별적인 관행을 떠나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받아드려 세시풍속의 범주에서 논의된다는 점을 앞에서도 밝힌 바 있다.

윤달은 日常의 달과 구별되는 달이다. 그래서 세시풍속을 논의하는 데에도 그러한 것이 적용되는 셈이다. 세시풍속은 ‘개별적인 사실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년 열두달의 歲時에, 의식주는 물론 삶의 문체 모든 것이 포괄되어 있다. 윤달의 세시도 비록 단편적이라고는 하지만 역시 이러한 것들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윤달의 세시에는 평소 꺼리는 일을 자유롭게 한다는 辨別性을 지녀 제한된 내용이면서 또한 일반성을 지닌 세시도 포함된다.

만일 윤달에 행해지는 풍속이 다른 달에 행해진다면 대부분 세시풍속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러나 윤달이라는 각별한 달에 행해지므로 歲時風俗化한 것이 대부분이다. 말하자면 그러한 풍속이 윤달과 맞물려 있으므로 세시풍속으로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의짓기라든가 묘이장과 같은 개인적이며 특별한 일은 해당 가정에서만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으레 윤달이면 행해지는 관행이어서 세시풍속이 되었다. 이는 세시풍속과 윤달의 밀접한 상관성을 말해준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윤달에 관행되는 歲時風俗을 통해 윤달의 性格과 意味를 파악해 보고 세시풍속과 윤달의 관계를 간략하게 검토해보았다. 태음태양력에서 윤달은 3년에 한 번, 또는 5년에 두 번이 들면서 그 때마다 달이 달라진다. 윤년에는 같은 달이 반복되는데 이 반복되는 달이 윤달이다. 윤달에는 대체로 평소 꺼리거나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사로운 일도 한다. 또한 질병과 재앙이 심해 祭를 지내며 조심해야 한다. 윤달의 세시풍속은 다른 달의 세시풍속과 辨別되면서 또한 공통적인 것도 있다.

세시풍속을 통해 본 윤달은 양면적인 성격을 지닌다. 꺼리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리낌없는 달인 반면 조심을 해야 하는 달이라는 양면성이다. 이는 윤달이 다른 달과 변별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양면성은 궁극적으로 신성적 의미로 집약된다. 윤달은 신성한 달이다. 이 신성상황에는 인간을 돕는다는 善神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해치는 잡귀도 존재한다. 그래서 질병과 재앙이 성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과 자유롭게 만나 神力의 도움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질병과 재앙은 장승제와 같은 祭를 통해 막아낸다.

윤달에 행해지는 세시풍속 가운데에는 개인적인 관행이 주를 이루는데 이것이 다른 달에 행해진다면 세시풍속의 범주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윤달이라는 각별한 달에 행해지므로 세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는 곧 세시풍속과 윤달의 밀접한 관계를 말해준다.

이 글의 첫 머리에서 윤달에는 혼례식을 하지 않는다는 신문기사의 글을 소개했다. 그러나 문헌기록에 의하면 윤달에는 오히려 혼례를 치른다. 기록대로라면 후대에 오면서 전혀 달리 해석된 셈이다. 그러나 윤달은 吉月인 반면, 윤달에는 질병과 재앙이 있는 달이라는 양면적 인식이 작용하여 慶事로운 일을 피할 수도 있으니 어떤 것도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양면성이 궁극적으로는 神聖性으로 연결되는 것이므로 꺼리지 않는 달일 수도 있고 역으로 꺼릴 수 있는 달일 수도 있는 것이다.

지난 1994년 음력 3월 7일은 五福이 든 吉日이라하여 전국의 예식장이 만원이었다고 한다. 역술적으로 年·月·日을 뜻하는 음양오행의 여섯글자인 甲戌·戊辰·癸酉 가운데 드물게 다섯가지 함이 나오는 날로 壽·富·康寧·攸好德·考終命 등 다섯가지 福을 불러드리는 날이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온갖 福을 주는 날이니 혼인 예식장이 동이 났다고 한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다른 날에 예식을 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내용을 언론매체에서 보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吉日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우리생활 속에서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윤달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다. 요즘도 윤달이면 수의를 짓는 집안이 있고 묘를 이장해야 할 사정이 있는 집안에서는 윤달에 행한다. 오늘날 음력(태양태음력)이 약화되고 또 이를 기반으로 한 세

시풍속 역시 퇴색되었으며, 그나마 남은 것도 世俗化되어 脫祭儀性이 두드러진다. 그런 중에서도 윤달에 대한 각별한 관념은 나름대로 전승되고 있다. 이는 비단 윤달의 세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속에서도 이와같은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洪錫謨, 『東國歲時記』  
慶熙大 民俗學研究所 編, 1987. 『瑞山民俗誌(上)』(瑞山: 瑞山文化院)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編, 1982. 『韓國民俗大觀 4 歲時風俗·傳承놀이 편』  
金明子, 1982. 「松坡의 歲時風俗」 『韓國民俗學』(서울: 民俗學會) 15.  
金明子, 1988. 「松川洞의 家神信仰과 歲時風俗」 『安東文化』(안동: 安東大 安東文化研究所) 9.  
金明子, 1989. 「韓國歲時風俗研究」 慶熙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김명자, 1994. 『되는 집안의 장맛은 달다 -전통의 멋과 슬기-』(서울: 열린문화)  
金泰坤, 1981. 『韓國巫俗研究』(서울: 集文堂)  
金泰坤, 1983. 『韓國民間信仰研究』(서울: 集文堂)  
文化財管里局 編, 1969-1981.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各道篇』  
이은성, 1985. 『역법의 原理分析』(서울: 정음사)  
趙孝順, 1988. 『韓國服飾風俗史研究』(서울: 一志社)  
張壽根, 1984. 『韓國의 歲時風俗』(대구: 螢雪出版社)  
秦聖麒, 1977(3판). 『南國의 民俗 -濟州島 歲時風俗-』(서울: 敎學社)  
중름 원저, 상기숙, 1996. 『荊楚歲時記』(서울: 집문당)